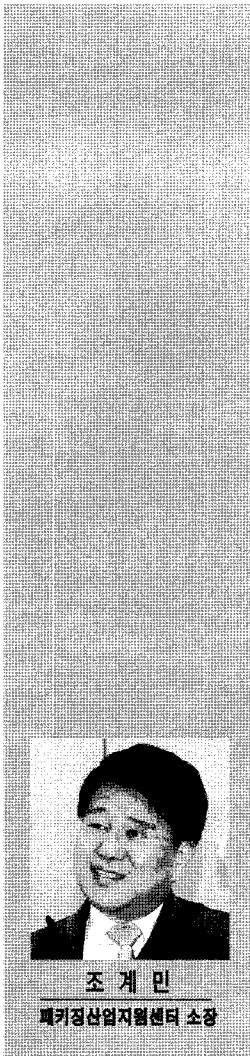




패키징 산업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A New Strategy for Korea's Packaging Industry Reform



조계민
패키징산업지원센터 소장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패키징 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다. 2009년에 들어서면서 실물경제가 더욱 더 위축되어질 것이라고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그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은 그간 지속적인 제조업의 성장이라는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국민경제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에 의존하다 보니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패키징 산업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치상으로도 해마다 수입증가 비율이 수출증가 비율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패키징 산업은 무역적자를 발생시키는 비교열위의 산업분야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포장은 물품의 수송·보관·취급 등의 과정에서 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 포장산업은 제조업을 보조하는 산업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즉, 우리는 가격 경쟁 위주에서 품질 경쟁 위주로 변모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추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내용물 자체의 질 뿐 아니라 내용물을 싸고 있는 패키징의 중요성도 모든 이에게 인식시켜 주어

야 한다.

이에 패키징 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패키징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패키징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2년을 기준으로 15%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시장의 극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진국들은 패키징 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자구방안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도 스스로 해답을 얻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데, 이의 시행착오 횟수를 줄여 빠른시간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2007년 8월에 디자인, 컨설팅 등과 함께 패키징을 '지식경제부 미래유망 지식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선정하는 등 패키징산업의 육성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전력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패키징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의 대두,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성 방침에 따라 우리 패키징산업지원센터(이하 패키징센터)는 정부와 산업현장 사이에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패키징센터는 패키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패키징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패키징센터는 국내 패키징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와 더불어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패키징 정보화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패키징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왔다.

이처럼 패키징센터는 패키징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패키징 산업의 비중에 비해 보면 아직은 지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패키징 산업의 지식서비스 산업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통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산업적 요구가 거센만큼 지원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09년 신년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산업계 전반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패키징 전문 공용장비를 구축하여 종합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구축되는 전문장비는 패키징 유해성 평가장비, 패키징 성분분석 장비, 패키징 성능평가 장비, 패키징 운송안전성 평가 장비 및 소규모 시험생산 장비로 우선적으로 구축되는 장비부터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시험분석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패키징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드디어 시작의 테이프를 커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패키징센터는 국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항상 눈과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패키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 및 '디딤돌'이 되어 드리고자 한다. 우리 패키징 기업들도 국내에 붙어닥치고 있는 경제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는다. ☞